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ore VLECs take Eastern Pacific orderbook to \$4.7bn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1일 수주했다고 발표한 VLEC의 선주는 Eastern Pacific Shipping(EPS)이라고 보도됨. EPS는 98,000CBM급 이중연료추진 VLEC 2척을 2023년 1월까지 인도 받는 조건으로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ea Consortium returns to Zhoushan Changhong with \$175m boxship order

Sea Consortium이 중국의 Zhoushan Changhong International Shipyard에 3,100TEU 피더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확정발주분 3척과 옵션분 2척으로 구성된 계약이며 총 발주규모는 1.75억달러라고 보도됨. 확정분의 인도기한은 2022~23년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Fossil fuel subsidies among targets of Biden's \$2.3 trillion infrastructure plan

미국 Joe Biden 대통령이 발표한 2.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 내용 중 화석연료 보조금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됨. 백악관은 회사의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분을 제거하겠다고 밝힘. (Upstream)

'Cleansed and totally safe': Mozambique's armed forces 'retake' Palma

Mozambique의 Defense & Security Forces(FDS)는 Palma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힘. Palma 지역은 Total이 주도하는 Afungi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위치에 인접한 지역이며, 11일간의 테러세력의 지배를 끝내고 이슬람 반란군을 몰아냈다고 보도됨. (Upstream)

두산중공업 · SK E&S 등 10여개사 힘 모은다…에너지연합체 출범

두산 · SK · 포스코 · 한화 · GS 등 국내 주요 그룹의 에너지 계열사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 DL에너지, SK E&S, E1,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 등 10개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보도됨. (뉴시스)

중국매체, 수에즈운하 사태 틈타 일대일로 철도 띄우기

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선박 좌초에 따른 이집트 수에즈 운하 정체를 거론하며 자국 주도의 일대일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는 보도를 내놨다고 보도됨. 영국 출신의 정치학자 톰 포우디는 최근 "비교적 단기적인 봉쇄였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질 것"이라면서 "획기적인 대륙 간 화물열차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